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12년 10월 2일(화)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가족정책 조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정책전략센터,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방안 모색해 보는 포럼 개최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배 포 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배포 날짜 : 2012년 10월 2일(화)

보도 날짜 : 2012년 10월 2일(화)

언론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황 애 리

(연락처: 02-3156-7296, 이메일: aeri2008@kwdimail.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 가족정책전략센터는 오는 10월 8일(월) 오후 2시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1인 가구의 증가와 가족정책 조명”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 개요



- 주제 : 1인 가구의 증가와 가족정책 조명
- 일시 : 2012. 10. 8.(월) 14:00~17:00
- 장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
- 주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정책전략센터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 가족정책전략센터는 오는 10월 8일(월) 오후 2시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1인 가구의 증가와 가족정책 조명”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 최금숙 원장은 “1인 가구는 2011년 기준으로 4인 가족이나 2인 가족보다도 많은 위치에 있다. 따라서 1인 가구를 위한 가족정책 재조명이 필요하다. 아울러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를 조성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써야 한다. 사회보장체계를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재정비하여야 하고,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행사의 개최의의를 밝혔다.

<행사 개요>

- 최근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1인 가구는 이혼, 별거에 따른 단독가구,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에서 기인하고 있다.

- 이에 이번 포럼은 주택, 안전, 연금, 노령 등의 맥락에서 1인 가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가족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고자 마련되었다.

- 포럼에는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등이 참석하며, 김혜영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강미선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변미리 서울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장,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성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이은경 여성신문 편집위원,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인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열띤 논의의 장을 펼칠 예정이다.

붙임 1. 포럼 개요

붙임 1. 포럼 개요

- 일 시 : 2012년 10월 8일(월) 14:00-17:00
- 장 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
- 주 제 :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가족정책 조명
- 주 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정책전략센터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4:00~14:30	등 록	
14:30~15:00	개회식	개회사 :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축 사 :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좌장 : 김혜영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		
15:00~16:50	발 표	강미선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변미리 (서울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장)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성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이은경 (여성신문 편집위원)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인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6:50~17:00	폐 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이다. 현재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법령, 정부정책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분석을 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